

광주시 “어린이날 황금연휴, 광주서 즐기세요”

연휴기간 가족 프로그램 풍성 내달 3일 시청서 서커스·마술쇼 5일 역사민속박물관서 민속놀이 무등도서관 등 체험 행사 진행

어린이날 등 황금 연휴를 맞아 광주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5월 3일 오전 9시 30분 시청 앞 잔디광장(우천시 시청 시민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어린이날은 석가탄신일과 겹치고 긴 연휴로 인한 가족 개별 일정 등을 고려해 연휴 첫날인 5월 3일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문화 공연부터 체험활동 등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이 풍성하다.

저글링 서커스, 유니버스 마술쇼 등 문화 공연을 시작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DJ와 함께하는 현장 노래방, 어린이 랜덤탄스, 금은보화 보물찾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대형 에어바운스 2대를 설치해 아이들이 잔디 위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했다. 네일·헤어·모자아트 체험, 가족액자·캐릭터 부채 만들기 등 체험부스도 운영한다. 체험부스는 인원이 한정돼 있어 선착순 이용 가능하다. 먹거리부스에서는 솜사탕, 팝콘 등을 나눠준다.

시청 1층 시민홀에서는 ‘아동친화도시 광주’를 주제로 한 아동 시화작품 전시가 준비돼 있으며, 안전체험관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된다.

광주광역시립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 5월 한 달간 지역 3개

도서관(무등·산수·사직)에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체험형 프로그램부터 공연, 전시, 연체해제 이벤트까지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다.

무등도서관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나만의 구슬풍선 꾸미기 체험(5월 3일) △봄 소풍 도시락 만들기 체험(5월 4일)을 진행한다. 아동 도서 ‘5번 레인’, ‘긴긴 밤’의 온라인 원화 전시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행사기간 중 연체 아동 회원을 대상으로 연체기록 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직도서관은 △‘어린이날 맞이’ 독서포춘쿠기 뽑기(5월 3~4일) △성인 대상 ‘페이퍼플라워-카네이션 만들기 체험’(5월 7일) △그림책 원화 ‘세상을 보는 눈, 지도’ 전시 △연체자 클린데이(5월 3

~4일) 등 가족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산수도서관은 △‘나만의 와펜 키링 만들기’ 체험(5월 4일) △매직별문쇼 공연(5월 4일)을 비롯해 5월 3일과 4일 ‘책저금통’과 어린이를 좋아하는 ‘책 포스터’를 배부한다. 연체기록 지우개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활동이 계획돼 있다.

프로그램 참여 접수는 도서관별로 사전접수 및 현장 참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 누리집(citylib.gwangju.go.kr)과 현장 홍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오는 5월 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박물관 야외 광장 일원에서 ‘5월 어린이·가족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페이스페인팅, 민속놀이, 무형문화유

산 만들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마술쇼, 풍선쇼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구성됐다.

주요 체험 행사로는 △버블놀이 △도전! 미션 5종(볼링·다트·고무신 던지기 등) △솜사탕·팝콘 나눔 △포토박스 가족 네 컷 촬영 △무형문화유산 체험(나전칠장·의례음식장) △초크아트·페이스페인팅 △전통 민속놀이 등이 있다.

특히 박물관 분관인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 무등산 분청사기전시실 등을 소개하는 홍보부스도 함께 운영돼 시민들에게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체험과 공연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체험료는 무료다. 문의는 광주역사민속박물관(062-954-6794)으로 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광주시,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공모

30일까지 신청·5월 중순 제공

광주광역시시는 관광·맛집·체험 등 광주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을 찾기 위해 30일까지 ‘2025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답례품과 공급업체 모집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시는 지난해 기존 14개였던 답례품을 62개로 대폭 확대, 모금액(3억 6000만원)이 약 3배 증가함에 따라 올해 공모에서도 분야별 답례 품목을 다수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2025 광주 방문의 해’와 연계해 △관광 서비스 △대표 맛집 △체험 등 다양한 답례품을 통해 기부자가 광주에 머무르며 광주의 다양한 맛과 멋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응모 자격은 광주에 사업장을 둔 생산·제조·서비스 업체 등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맞는 품목을 제안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일정과 신청 방법은 광주광역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답례품과 공급업체는 ‘광주광역시답례품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답례품의 지역 연계성, 상품 우수성과 공급업체의 지역 내 정착도, 신뢰도 등을 반영해 평가한다.

추가 선정된 답례품은 5월 중순부터 제공될 예정이며 ‘고향사랑이음’과 은행(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 등 온라인, 농협지점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후 주문할 수 있다.

정성아 기자

전남도, 순천 담락재·현판 등 유형문화유산 지정

전라남도는 역사·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와 계승을 위해 ‘강진 월남사 감강정 필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 권 제16’, ‘순천 담락재와 현판’을 전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유산은 고려 중기 불교 경전의 필사본과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교육과 문화 교류 중심지로 기능했던 공간으로 전남의 종교적·사회문화적 전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다.

강진 월남사 감강정 필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 권 제16은 당나라의 고승 의정(義淨)이 한자로 번역한 총 18권의 불교 경전으로, 이번에 지정된 유산은 이 중 16권을 사경(寫經)한 것이다.

이 불경은 고려시대 초조대장경을 저본으로 삼아, 12~13세기 보현사에서 부호장(副戶長) 김강정이라는 인물이 정성스럽게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사경본의 보존 상태가 매우 우수할 뿐 아니라, 제작 시

기가 이른 편에 속해 고려 중기 불교문화와 사경 예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순천 담락재와 현판은 조선 후기인 1841년 옥천조씨 문중의 조진익과 조진룡 형제가 건립해 후손과 향리 자제의 교육과 문인 교류,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됐다.

담락재는 효도와 우애, 학문적 교류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중심지 역할을 해온 문화 공간으로, 조선 후기 교육문화의 중요한 사례로 손꼽힌다. 건물은 정면 4칸, 측면 1칸 구조로 뒷간을 두른 전형적 재사 건축 형식을 따르고 있다. 내부에는 편액, 주련, 기문, 시판 등 총 51종의 현판류가 전해지고 있다. 특히 42종 45제(題)의 시판은 담락재가 단순한 제사의 공간을 넘어 지역 내 문화와 교육의 장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유산이다.

오지현 기자

광주도시공사, 어린이날 염주실내빙상장 무료 개방

피겨 꿈나무 공연·포토존 운영

광주도시공사는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광주실내빙상장을 어린이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5월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만 13세 미만 어린

이를 대상으로 무료 개방한다. 다만, 장갑과 운동복은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날을 기념해 피겨스케이팅 꿈나무 공연이 열리며, 빙상장 내에는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운영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도시공사 실내빙상장(062-380-688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권범 기자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성료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을 맞아 28일 오전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양재원 전남도새마을회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22개 시·군 회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을 맞아 28일 오전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양재원 전남도새마을회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22개 시·군 회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새마을회 제공

전남도, 6월부터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65세 이상 160여명 매월 6만원

전라남도는 민주화에 헌신한 도민을 예우하기 위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오는 6월부터 매월 6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생계가 어려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생계지원비를 지급했으나 민주주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수당은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이며 전남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신

정할 수 있지만 생계지원비를 받는 경우 중복지원이 안 된다. 현재 전남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160여명이다.

전남도는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현수막, 포스터,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전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6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분증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을 지참해 신청하면 매월 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과거 이 땅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 앞장섰던 분들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사회가 드리는 존경과 감사의 표현으로, 늦었지만 따뜻한 예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와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명예수당, 생활지원금, 장제비, 가사도우미 및 교통부름이 등도 지원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광주방문의 해’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

市, 스토리텔링 기법 공유 등 교육

광주광역시시는 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역사·지질·여성·문화·관광 등에서 활동하는 해설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광주시가 역점 추진 중인

‘광주방문의 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설사들이 알아야 할 역사, 문화관광해설 흐름 등을 공유함으로써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설서비스 제공자로서 갖춰야 할 기술과 기획력 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광주방문의 해’ 주요 추진 내용 △문화관광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

의 최신 흐름 △소설 ‘소년이 온다’ 연계인문학 교육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교육에 참석해 “광주에는 다양한 스토리가 있고, 모든 광주 시민은 해설사가 돼야 한다”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지나면서 전국, 전 세계에서 광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해설사 여러분이 연금술사가 되어 구슬을 보배로 꿰어달라”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